

#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와 영향요인

## The Preferences of The Elderly for Their Care Types and Contributing Factors

제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부교수 김혜연  
여주대학 가정과  
조교수 김성희

Home Management, Cheju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Hye-Yeon Kim  
Home Economics, Yeoo-joo Institute of Technology  
Assistant : Sung-Hee Kim

### ◀ 목 차 ▶

- |                  |             |
|------------------|-------------|
| I. 문제의 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 론      |
| III. 연구모델 및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eferences for care type among the elderly and to analyze contributing variables. The sample in this study are 485 elder people who are age 55 and over. The independent variables are divided into five factor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fall into two categories of private and public care types.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Logistic Regression method are employed for the analysis.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elderly prefer individual care paid for by their own support to the other types like the care by children or institution. However, the elderly still like and expect family care by their children. The variables that have affected the preferences of the care types among the elderly are whether they are employed or not, household's the amount of debt, whether they currently live with the oldest child, their level of self esteem and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in life. The results show that the elderly don't have various wants or alternatives to their care and regard public care as negative support for the financially incapable or the elderly who have no relatives.

### I.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는 인구의 평균수명이 1960년 52.4세에서

1995년 72.8세로 20년 이상 길어졌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은 1995년 5.7%였고, 2001년에는 7%, 2023년에는 1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노인가구 및 노인 단독가구가 1975년 4.2%에서 1990년 9.0%로 2배 이상 증가하는 등(통계청, 1996) '고령화사회'로 진행하고 있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7)의 연구에 의하면 60세 이상 노인의 가족형태를 보면 노인단독가구가 53.0%,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25.4%, 장남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20.1%로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노인이 혼자살거나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이유는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35.0%), 건강하기 때문에(20.8%), 직장, 교육 때문에(14.4%), 주택이 불편해서(11.8%), 아들이 없기 때문(1.3%)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5세 이상의 노인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액을 살펴보면 1980년 26만 2천원, 1985년 49만 6천원, 1990년 106만 5천원 등으로 지속적인 상승추세에 있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50% 이상이 절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노인은 10% 미만에 불과하다(민재성 외, 1993). 이것은 근대화 과정을 통해 가족구조가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효개념이 쇠퇴해 가고 있어서,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고,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부모에 대한 부양이식이 변화하고 있는데에서 기인된다.

따라서 날로 증가하는 노인의 부양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사회는 전통적인 관념상 지금까지 가족주의 속에서 노인부양을 해결한다는 논리가 지배적이었다(김송애, 1990). 이것은 전통사회의 노인은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 사회적 존경과 지위를 가졌고 효사상을 기초로 한 가족부양이 전제되었다. 반면, 현대사회에서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역할이나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또한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진출 및 부모에 대한 부양이식이 변화하고 있어, 노인부양의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던 가족의 노인부양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인구의 증가나 노인부양의식의 변화는 복지측면에서 사회의 부담을 요구하며, 생산인구 대 비생산인구비율에

의한 노인부양지수<sup>1)</sup>에서 나타나듯이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증가를 초래한다. 따라서 노인부양은 개인이나 가족 뿐 아니라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유교문화를 기초로 한 가족부양 속에서 편안하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현대사회에서는 현재 노인 뿐 아니라 젊은이들조차 길어진 노후를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경험하고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극적으로 노후를 보내려는 것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노후를 생각하고, 대비하며, 나아가 '제 2의 삶'을 계획하는 개인이나 가정의 '노인부양' 설계가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뜻한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족부양을 전제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세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더욱이 노인시설이나 양로원 등이 잘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노인부양시설이 미비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이어서 다양한 부양형태가 고려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최근 가족부양유형만이 아니라 노인의 개인부양이나 노인시설의 이용과 같은 다양한 노인부양유형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있는 것은 개인의 노후 부양유형에 대한 계획과 선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오늘날 현재 노인 뿐 아니라 젊은세대들도 길어진 노후를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보낼 것인가와 관련하여 부양유형을 계획하고 설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노인부양유형에 관한 연구들은 노인이 있는 가족의 정서적, 물질적 문제,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 의료 시설의 부족 등(강기선, 1997; 이신숙, 서병숙, 1994; 조유향, 1988; 현인숙, 1997) 특정한 부양유형을 중심으로 한 실태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서구사회와는 다른 가치관과 조건 속에서 노인부양의 문제에

1) 노인부양지수란 60세 또는 65세 이상 인구수를 경제활동가능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부양지수는 1979년 10.3, 1990년 11.6, 1995년 13.3, 2000년 15.6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민재성 외, 1993).

직면하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노인부양유형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부양유형이 아니라 여러 부양유형에 대한 노인의 선호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노인의 부양형태에 대한 선호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의 특성에 따라 선호하는 부양유형을 밝혀주므로 개인, 가족 나아가 정책적 관점에서 노인부양유형에 대한 계획과 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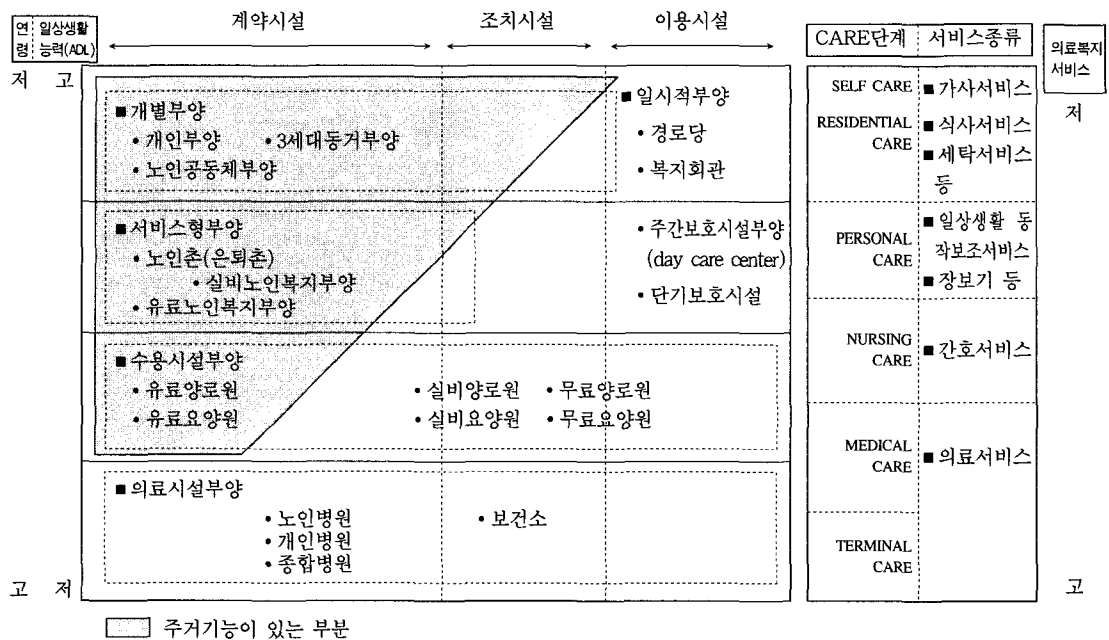
## II. 이론적 배경

### 1. 노인부양 유형

노인부양은 관점이나 초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노인의 연령, 건강상태(일상생활

에서의 자립능력정도, ADL), 서비스의 종류와 필요정도, 부양시설과 이용조건 등을 중심으로 노인부양유형을 세분해보면 <그림 1>과 같다.

우선 개별부양은 가장 일반적인 부양유형으로 비교적 건강하여 많은 의료서비스가 요구되지 않는 노인에게 대한 부양유형이다. 즉 사회의 노인부양분담이 적은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노인 개인 혹은 노인부부가 자신의 부양을 해결하는 개인부양과 가족원이 노인부양을 책임지는 3세대 동거부양 혹은 가족부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밖에 노인공동체 부양은 동년배의 노인이 생활을 같이 영위함으로써 생활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을 말한다. 선진국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개인부양이 발달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노인의 개인부양을 돕기 위해 노인의 욕구와 신체적 조건을 고려한 노인주택을 공급하고 있기도 하다(김태일, 1996). 반면 우리나라는 노인의 개인부양이 강조되기 보다는 노인이



<그림 1> 노인부양분담에 따른 노인의 부양유형  
출처: 박재간(1995), Taeil, Kim(1994)를 기초로 재구성

자녀와 함께 동거함으로써 노인부양이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부양유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대한주택공사가 3세대주택을 건설하는 데에서도 나타나듯이 노인세대와 자녀세대 간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는 노인부양에 있어서 가족부양이라는 전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노인부양유형을 고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인에 대한 서비스형 부양유형은 노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설에서 생활함으로써 부양문제를 해결하는 형태를 말한다. 최근 실버산업(silver industry)의 확충에 따라 이를 수익사업화한 것이 실버타운(silver town)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인을 위한 개인, 공동 생활시설과 서비스의 규모, 질에 따라 단지형태의 노인촌, 유료노인복지주택, 실비노인복지주택에서의 부양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는 정년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하는 동년배의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여생을 즐겁게 보내려는 비율이 적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특히 미국은 노인을 소비자로 보는 주거산업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나라 중 하나로 1,000세대 이상 큰 규모의 노인촌이 약 2,600여 곳이 있으며, 여기에는 각종 오락, 편의 시설이 갖춰 있다(강기선, 1997; 박재간, 1995).

수용시설부양유형은 양로원, 요양원과 같은 수용 시설에서 노인들의 부양을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형태이다.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생활한다는 점에서는 서비스형 부양유형과 다를 바가 없지만, 입주방법과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부터 65세 이상되는 빈곤 및 무의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시설부양을 제공해왔다. 또한 1989년 노인 복지시설이 8종류로 세분화되면서 그 수가 152개로 증가했지만, 각 시설의 설립목적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단순히 저소득계층의 무의탁 노인에 대한 수용, 보호의 부양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강기선, 1997; 이무승, 1995). 우리나라에서 요양원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인시설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 때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 요양시설은 못 가진 자, 자식에게 대우받지 못하는 자, 버려진 자만이 가는

곳이며, 불쌍하고 외로운 노인들만 모여 있는 곳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이가옥, 1990). 반면 미국의 경우 수용시설부양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 운영되며, 대체로 중산층 이상이 되어야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전국적으로 약 28,000여 곳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박재간, 1995)

한편 의료시설부양유형은 보건소, 노인병원, 개인병원, 종합병원과 같이 의료서비스가 중점적으로 제공되는 시설에서 노인 부양이 제공되는 것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부양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장기간 진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서 병원 등에 장기입원을 한 후 입증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전문병원은 아직 없으며, 시설이나 의료보험 등의 측면에서 노인에 대한 의료시설부양은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민간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버타운은 노인에 대한 의료시설서비스와 연계하여 계획되고 있다<sup>2)</sup>.

마지막으로 노인부양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노인부양을 시설에 단기적으로 위임하는 일시적 부양유형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경로당, 복지회관, 노인대학 등이 이러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부양을 위한 주간 및 단기보호 성격의 시설은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해도 그 성격상 실질적인 노인부양을 분담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home care service center, day care center, 그리고 intermediate facility 등이 이러한 부양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박재간, 1995).

이상과 같이 노인부양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길어진 노후와 개인 부양에 대한 노인 자신의 요구 변화 뿐 아니라 노인을 둘러싼 사회, 경제, 심리적 조건의 변화는 노인부양유형에 있어서 보다 많은 다양성과 세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여러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2) 예를 들어 경남기업이 성남 분당에 건설하고 있는 실버타운은 서울대 노인전문병원과 연계된 것이며, 삼성생명은 경기도 기흥에 삼성병원과 연계된 실버타운을 건설 중에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인부양유형은 노인 부양의 필요성이나 개인, 가족, 그리고 사회의 부양 의지 및 부담 정도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젊을 때 적금, 보험, 투자 등의 재무관리를 통해 노후를 대비하고 실제로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생활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개인 부양을 고려하거나,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들이 부양을 책임지는 자녀부양유형을 통해 부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노인은 노인을 위한 시설이나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시설부양에 의존할 수 있는데, 개인부양과 자녀부양유형이 개별부양의 성격 갖고 있는 것과는 달리 시설부양유형은 공적 부양의 질과 관계가 있다.

## 2. 선행연구 및 관련변수의 고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이 자녀, 특히 장남과의 동거를 통한 자녀부양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가족화, 소자녀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로 인한 가족부양기능의 약화와 함께 젊은이들의 부양의식이 변화되면서 장남에 의한 부양이 당연시되기보다는 부모를 모실 능력이 있거나 부모와 관계가 좋은 자녀와의 동거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어떤 자녀인가에 관계없이 노인의 자녀부양유형에 대한 우선적 선호를 보여준다. 반면 생활수준의 향상이나 생활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가치관에 의해 부모와 자녀와의 동거가 불편하게 느껴지면서 서로 따로 사는 것이 부담이 없다는 인식이 증가(조선일보, 1997)하고 있는 것은 노인의 개인부양에 대한 관심과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에게 있어서 첫자녀와의 동거 여부 및 자녀관계친밀감과 같은 부모-자녀와의 관계는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서 기본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이다.

자녀부양유형에 대한 노인의 선호는 노인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가옥(1994, 1995)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며 연령이 많을수록 장남 또는 다른 아들 혹은 딸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또한 자녀와의 동거희망여부는 노인의 결혼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어 유배우자 노인이 자녀와 따로 살기를 희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한국노인문제연구소(1993)의 조사결과에서도 75세 이상 노인보다 60세 초반과 고학력 노인들이 독립주거를 선호했으며, 조사대상 노인의 38.3%는 노인시설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부양유형에 대한 의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취업유무는 경제적 자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으로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은 자녀와 별거하여 독립적인 부양유형을 취한다고 한 Eu(1992)의 연구결과에 의해 노인의 취업유무에 따라 노후의 부양유형 선호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문윤상(1996)의 연구에서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유료양로시설, 노인아파트, 노인촌락, 노인연립주택, 노인요양원, 노인병원, 노인휴양소 등 양질의 서비스를 갖춘 다양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은퇴 후 시간이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노인들이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생활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시설부양유형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실버산업이나 실버타운 등은 이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반면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은 경제적으로 무능한 무의탁 노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것이다. 1989년 현재 노인시설에 수용된 노인수는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0.3%, 생활보호대상 65세 이상 노인의 8.2%에 이르고 있다(김영숙, 1994). 말하자면 경제적으로 무능한 노인에게는 국가의 수용시설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데, 이는 노인의 경제력이 자신의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나 실제 부양유형을 결정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자원임을 보여준다. 노인의 경제력은 소득, 자산, 부채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노인의 용돈은 가계의 생활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김수연, 1987; 문숙재 외, 1996).

한편 건강한 노인은 경제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 개인부양이 가능하며, 자녀 부양유형에서도 가정내에서 가사일을 분담함으로써

가족들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다(한국인구보건연구원, 1985). 그러나 노인은 대체로 만성적 질병을 갖고 있기 쉬우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생활능력(ADL)이 감소될 뿐 아니라 70세 이상이 되면 신체적 자립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 이가옥(1993)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86.8%가 만성 퇴행성 질환에 걸려 있으며, 이들 중 74.6%의 노인이 신체, 정신, 사회적 기능의 저하와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 기능의 저하와 타인에의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은 일반적인 부양이외에 치유 내지 장기적인 간호가 포함된 부양이 요구된다. 노인에게 있어서 건강의 유지는 중요한 관심사이지만,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나 최성재(1993)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젊은이들도 노후생활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건강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만일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요양원에 입소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영숙(1994)에 의하면 현재 노인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들은 질병이나 건강문제가 없는 노인들이 다양한 건강문제와 의료서비스가 요구되는 노인들과 혼합 수용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노인의 건강상태는 부양유형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에 의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근 노인단독가구의 증가나 노인시설에 대한 고려는 자녀세대의 부양의식 약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 자신이 전통적인 부양의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부양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노인은 자기 자신이나 생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타인이나 운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에 의해 생활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기 쉽다. 노인복지에 대한 연구들은 노인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생활만족도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Cavanaugh, 1990; Chatfield, 1977). 또한 노인의 생활문제인지와 생활계획에 대한 홍성희 외(1997)의 연구에서도 노인 자신의 생애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자신감 등의 심리적 준비

가 중요하다고 지적된 바 있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할 때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는 우선 노인의 개인적 특성이나 심리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인이 갖는 특정 이외에 노인이 부양유형을 선호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자녀이며,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타인이나 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노인의 경제력은 부양유형의 계획과 선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므로 노인의 자녀관계, 건강상태 및 경제력은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의 부양유형선호를 분석하기 위해 두 개의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첫째, 노인부양유형을 노인개인 혹은 부부에 의한 개인부양, 자녀와의 동거에 의한 자녀부양, 그리고 노인시설거주에 의한 시설부양의 세 종류로 구분한 후 건강, 경제력, 자녀관계의 주요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각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를 분석하였다. 이는 각 요인이 노인에게 있어서 문제가 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요인과 관계없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양유형에 대한 7개의 질문을 통해 파악되었다. 둘째, 노인부양유형 중 개인부양과 자녀부양을 개별부양으로 범주화하여 개별부양과 시설부양의 두 부양유형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파악하였다. 이 때 부양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크게 노인의 개인특성변수, 건강변수, 경제상태변수, 자녀관련변수 및 심리적특성변수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개인특성변수에는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취업상태를 포함시켰고,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통해 노인의 건강상태를 조사하였다. 경제상태변수에는 노인가계의 소득, 부채 및 노인개인의 용돈이 포함

되었으며, 자녀관련변수는 첫 자녀동거여부와 자녀 관계친밀감이, 심리적특성변수는 자아존중감, 내외 통제성, 생활만족도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변수들의 정의와 측정방법은 <표 1>과 같다.

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조사대상은 서울, 대전, 전주,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인으로 연령, 소득수준, 배우자 유무 등을 고려한 유의적 표본 추출방법에 의해 표집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법

변 수	정의 및 측정방법
<b>종속변수</b>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	노인이 원하는 부양형태 1=개별부양 (노인개인, 노인부부에 의한 개인부양 및 장남 혹은 다른 자녀와 동거에 의한 자녀부양) 0=시설부양 (노인공동체, 복지시설, 노인타운거주에 의한 부양)
<b>독립변수</b> 개인특성변수 연령 교육수준 결혼지위 취업상태	노인의 연령 노인의 교육년수 노인의 결혼상태 1=결혼, 0=기타(별거, 이혼, 사망) 노인의 현재 취업상태 1=무직, 0=취업
건강변수 건강상태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1=매우 나쁘다, 3=보통이다, 5=매우 좋다
경제상태변수 가계소득 개인용돈 가계부채	노인가계의 월평균 총소득(원) 노인개인의 월평균 용돈(원) 노인가계의 총부채(원)
자녀관련변수 첫 자녀동거여부 자녀관계친밀감	가정내 첫 자녀와의 동거 여부 1=동거, 0=기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인지도 1=매우 나쁘다, 3=보통이다, 5=매우 좋다
심리적 변수 자아존중감	노인의 자아존중감 수준 1=매우 낮다, 3=보통이다, 5=매우 좋다
내외통제성	노인의 통제성향 수준 1=매우 낮다, 3=보통이다, 5=매우 좋다
생활만족도	노인의 전체 생활만족도 1=매우 불만족한다, 3=보통이다, 5=매우 만족한다

되었다. 1996년 12월 2일부터 1997년 1월 17일에 걸쳐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훈련된 조사원에 의한 면접을 통해 질문에 대한 응답을 수집하였다. 부실 응답을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485부였다.

### 3. 분석방법

일반적인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주요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부양, 자녀부양 및 시설부양의 각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실태는 단순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를 통해 파악하였다. 개별부양과 시설부양으로 구분된 노인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에 각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종속변수가 이항변수이므로 Logistic Regression에 의해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연구모형에 사용된 변수들의 적률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05 수준 미만에서 유의하였고, VIF 값은 10미만으로 나타났다.

## IV. 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응답자의 연령은 평균 66.3세였고 평균 교육수준은 8.83년으로 중졸이하의 수준이었다. 결혼지위는 68.2%가 결혼상태였으며, 현재 취업상태에 있는 노인은 54.2%였다. 노인의 평균 건강상태는 3.14점으로 '보통'의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노인 가계의 총소득은 평균 154.6만원이었고, 부채는 평균 833.42만원이었으며, 개인용돈은 평균 4.23만원으로 개인에 따라 용돈의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은 6.8%인 반면, 자녀관계친밀감은 평균 3.57점이어서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노인의 자아존중감, 내외통제성, 생활만족도와 같은 심리적 특성은 모두 '보통' 수준을 약간 넘는 정도였으며, 이 중 가장 높게 나타났던 것은 생활만족도로서 평균 3.29점이었다.

<표 2> 조사대상자의 특성

(N=485)

범주형 변수(Categorical v)		빈 도(Frequency)	백 분 율(Percentile)
결혼지위	결혼	331	68.2
	기타	154	31.8
취업상태	취업	263	54.2
	무직	222	45.8
첫 자녀 동거여부	동거	33	6.8
	기타	452	93.2
연속형 변수(Continuous v)		평 균(Mean)	표 준 편 차(SD)
연	령(세)	66.31	8.59
교	육 수 준(년)	8.83	5.34
건	강 상 태(1-5점)	3.14	0.91
가	계 소 득(만원/월)	154.60	140.59
개	인 용 돈(만원/월)	4.23	5.28
가	계 부 채(만원)	833.42	4223.02
자	녀관계친밀감(1-5점)	3.57	0.63
자	아 존 중 감(1-5점)	3.21	0.78
내	외 통 제 성(1-5점)	3.04	0.64
생	활 만 족 도(1-5점)	3.29	0.54

\*결측값(missing data)으로 인해 빈도의 총합에 차이가 있음



〈표 3〉 경제력, 건강상태 및 자녀관계에 따른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실태 빈도, % (N=485)

부양형태	영향요인 전제조건	경제력		건강상태		자녀관계		이상적 유형 ×××
		O	×	O	×	O	×	
개인부양 (노인개인, 노인부부)		155 (34.8)	263 (58.6)	110 (24.5)	259 (58.7)	196 (44.7)	222 (50.6)	216 (54.7)
자녀부양 (장남, 다른 자녀)		228 (51.1)	145 (32.3)	265 (59.0)	146 (33.1)	167 (38.1)	173 (39.4)	129 (32.7)
시설부양 (노인공동체, 노인시설, 노인타운)		63 (13.1)	41 (9.1)	74 (16.5)	36 (7.2)	75 (17.0)	44 (10.0)	50 (12.7)

\*O: 문제가 될 경우, ×: 문제가 안될 경우, ×××: 모든 요인이 문제가 안 될 경우

## 2.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 실태

노인의 경제력, 건강 그리고 자녀관계 요인을 중심으로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노인은 전체적으로 모든 요인이 문제가 없다면 가장 이상적인 부양유형으로 개인부양을 선호하였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자녀부양에 의존하는 부양의식이 노인집단 내에서도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인부양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노인의 절반 이상이 경제력, 건강, 자녀관계에 문제가 없을 경우 개인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만일 문제가 있을 경우 가장 선호했던 부양유형은 자녀부양이었다. 특히 건강, 경제력의 영향요인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로 구분하였을 때 자녀부양에 대한 선호비율이 차이가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자녀관계요인에서는 자녀부양에 대한 선호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자녀부양을 당연시하는 전통적 부양의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전반적으로 시설부양에 대한 선호비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노인부양에 대한 전통적 인식과 함께 시설부양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으로 인해 영향요인이 문제가 될지라도 시설부양이 개인부양이나 자녀부양에 비해 대안으로 고려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

부양에 대한 선호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전통적 부양의식의 변화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녀부양에 대한 부담이나 시설부양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같은 현재 노인부양에 대한 문제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3.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부양유형을 개별부양(개인부양 및 자녀부양)과 시설부양으로 구분한 후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에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체 모델은  $-2 \log \text{likelihood}$ 와 Concordant ratio를 고려할 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고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의 개인특성 변수 중 부양유형 선호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취업상태로 현재 취업을 하고 있는 노인은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반면 무직일 경우 개별부양을 선호하였다. 취업은 노인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관계가 있으므로(Kilty & Behling, 1986) 취업하고 있는 노인은 자신의 부양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거나 그러한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비용을 부담하는 유료시설부양을 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노인가계의 부채가 많을수록 개별부양이 아닌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을 경우 자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용시설에 의탁하려는 동기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은 현재 첫 자녀와 동거하고 있을 때 개별부양을 선호하였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거나 혹은 원만하지 않은 것과 관계 없이 실제로 부양을 해주는 자녀가 있는가의 여부가 선호형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노인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개별부양을 선호하였던 반면, 그렇지 못한 경우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노인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시설부양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노인의 생활문제 인지와 생활계획에 있어서 심리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홍성희 외(1997)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가옥(1990)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에게 있어서 시설부양이 노인부양을 위해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기보다는 자녀에게 버림받고, 무능하며,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자포자기 심정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부양형태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V. 결론

오늘날 노인은 자신의 부양을 책임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세대이지만,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변화되면서 부양과 관련되어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노인의 부양 유형 선호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선호 실태를 밝히고 예측함으로써 노인 부양을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노인은 경제력, 건강상태, 자녀관계에 문제가 없을 경우,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인과 관계없이 이상적인 부양유형으로 개인부양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그 다음은 자녀부양, 시설부양의 순으로 선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녀부양을 우선시하던 과거의 전통적 부양의식에서 노인이 벗어나고 있는

〈표 4〉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대한 Logistic Regression 분석

독립변수	종속변수	Parameter Estimation	Standard Error
개인특성변수			
연령		0.020	0.017
교육수준		0.021	0.028
결혼지위(기타)		0.235	0.261
취업상태(취업)		0.523*	0.243
건강변수			
건강상태		-0.156	0.132
경제상태변수			
가계소득		2.029E-7	1.212E-7
개인용돈		4.909E-7	3.733E-7
가계부채		-5.54E-9*	2.499E-9
자녀관련변수			
첫자녀동거여부(기타)		1.023**	0.423
자녀관계친밀감		-0.374	0.209
심리적특성변수			
자아존중감		0.638***	0.174
내외통제성		0.217	0.195
생활만족도		0.531*	0.254
intercept		-0.298	
-2 Log likelihood concordant		489,314***	71.0%

\*p < .05, \*\*p < .01, \*\*\*p < .001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만일 경제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 더욱이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라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은 자녀라는 응답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던 결과를 고려할 때 노인은 여전히 자녀부양을 기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노인의 개인부양 선호는 노인세대의 가치관 변화가 직접적인 원인이라기 보다는 자녀나 일반적인 사회의 부양의식 변화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자녀의 부양 의지가 확고하고 실제로 부양을 책임지고 있다면 노인의 개인부양에 대한 선호는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개인부양과 자녀부양에 대한 높은 선호 비율은 상대적으로 시설부양에 대한 낮은 선호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것은 서구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공적 부양형태가 현재 노인부양에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데에서 부분적으로 기인된다.

둘째, 노인의 부양형태 선호에 영향을 미쳤던 변수는 노인의 취업상태, 가계부채, 첫 자녀 동거여부, 자아존중감 수준 및 생활만족도였다. 노인은 현재 무직이거나, 가계부채가 적을수록, 첫 자녀와 동거하고 있을 때,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생활에 대해 만족할수록 개별부양을 선호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재 직업을 갖고 있지 않고, 가계부채가 많으며, 첫 자녀와 동거하고 있지 않고, 자아존중감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노인은 시설부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인이 사회적, 경제적 자원이 충분하고,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생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자신감을 갖고 있을 때 개인부양이나 자녀부양을 기대하며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제력과 관계가 있는 취업상태와 가계부채의 영향력이 개별부양과 시설부양에 미쳤던 상반되게 나타난 결과는 부양유형 선호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것이다. 이는 노인에게 있어서 시설부양이 노인부양유형에 있어서 극단적인 두 가지 다른 유형의 부양, 즉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노인이 생활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부양유형 혹은 가난하고 갈 곳없는 노인을 위한 수용시설과 같은 부양유형이라는 노인의 대조적인 인식을 반영해준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정되었던 노인의 개인특성변수, 건강변수, 경제상태변수, 자녀관련변수 및 심리적 특성변수 중 심리적 특성변수는 노인의 부양유형 선호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였다. 또한 본 연구에 나타난 변수의 영향력은 그에 따라 노인의 부양유형이 차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부양유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으로 가정하였던 노인 개인의 특성, 건강, 경제상태 등과 관련된 변수들이 무의미하게 나타난 결과는 노인 자신의 자원에 따라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가 개별화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즉 현재 노인은 젊은 시절 자신의 부양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노년을 맞이한 세대로 자신의 부양에 대해 다양한 욕구나 설계가 부족하여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에 있어서 동질적인 집단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부양유형과 관련된 노인의 갈등과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개인은 자신의 부양을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에게 있어서 개인부양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겠지만, 현재 노인은 자녀를 위해 헌신하였고, 노후를 당연히 자녀가 책임질 것으로 생각했었기 때문에 개인부양을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 또한 노인의 신체적 특징상 개인이 모든 부양을 책임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느 시기가 되면 자녀나 시설의 도움이 필요해지게 된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연로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노인을 전적으로 자녀에게 책임 지우는 것은 노인 뿐 아니라 자녀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자녀의 부양의식 약화는 무능한 부모의 부양을 짐스럽게 느껴지게 한다. 더욱이 시설이나 기관에서의 노인부양이 버려진 노인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인식되거나 이와 대조적으로 여유 있는 계층의 노인만을 위한 시설이 설립되면서 대부분의 노인들에게는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노인의 부양에 있어서 개인부양, 자녀부양, 시설부양 등은 모두 부양을 위한 대안으로 존재해야 하며 선택 가능해야 한다. 그러므로 노인 자신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양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부양설계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며, 자신의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상황에 적절한 부양유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노인이나 앞으로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프로그램이나 상담프로그램의 이용과 활성화가 요구된다. 노인부양은 가족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될 때 노인의 만족도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자녀의 부양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자녀세대의 노인부양부담을 실제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세계혜택, 의료서비스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부양을 위해 서구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과 시설, 기관의 설립 및 확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노인의 개인부양, 자녀부양의 부담을 줄이고 노인부양에 대한 탄력성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노인의 부양유형과 관련된 개인, 가족, 사회의 문제점을 밝히고 부양과 관련된 결정을 돕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재 노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세분화된 부양형태에 따라 영향요인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노인 뿐 아니라 자녀세대 및 앞으로의 노인을 포함시켜 그들의 부양유형에 대한 선호를 파악한다면 노인의 부양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1) 강기선(1997). 유료 노인 간호요양원 모델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2) 김수연(1987). 도시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숙(1994).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서비스 유형설정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4) 김태일(1996). 고령자복지시설 확보를 위한 자원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 7(2), 184-192.
- 5) 문숙재 외(1996). 노인가계와 비노인가계의 재정상태 비교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3), 223-235.
- 6) 문윤상(1996). 우리나라 노인산업의 발전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7) 민재성 외(1993). 한국의 노령화 추이와 노인복지대책. 한국개발 연구원.
- 8) 박재간(1995). 노인주거산업의 현황과 과제.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335-355.
- 9) 이가옥(1990).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0) \_\_\_\_\_(1993). 노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1) \_\_\_\_\_(1995). 노인의 거주형태와 가족관계.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209-230.
- 12) 이가옥 외(1994). 노인생활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3) 이무승(1995). 한국 노인복지시설의 활성화 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14) 이신숙, 서병숙(1991). 농촌 기혼여성의 노부모 부양의식과 부양수행도. 한국노년학회지, 11, 191-211.
- 15) 이연숙(1995). 노인을 위한 주거환경.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나남출판사, 315-334.
- 16) 저축추진중앙위원회(1995). 노후생활에 관한 의식 및 준비실태조사.
- 17) 조선일보(1997). 10월 28일, 33-35.
- 18) 조유향(1994). 지역사회 노인의 생활만족도 및 간호요구의 측정을 위한 조사연구. 간호학탐구, 3(2), 66-84.
- 19) 최성재(1993). 유료 노인복지시설운영개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 통계청(1992, 1996).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 21) 한국 노인문제연구소(1993). 실버산업 개발전략.
- 22) 한국인구보건연구원(1985). 한국노인의 생활실태.
- 23) 현인숙(1997). 지역사회 노인보건의료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24) 홍성희 외(1997). 노년기 생활설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3), 151-169.
- 25) Cavanaugh, J. C.(1990). *Adult Development and Aging*. Belmont, CA: Wadsworth Publishing CO.
- 26) Chatified, W.(1977). Economic and Sociological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Journal of Gerontology*, 32, 593-599.
- 27) Eustic, N. N. et al.(1884). *Long-Term Care for Older Persons: A Policy Perspective*. Monterey: Cole Pub.Co.

- 
- 28) Hannen, E. L. & J. F. O'Donnel(1984). Adult Day Care Services in New York State: A Comparison with Other Long-Term Care Providers. *Inquiry*, 21.
- 29) Hurd, M. D.(1990). Research on the Elderly: Economic Status, Retirement, and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8, 565-637.
- 30) Kilty, K. M. & Behling, J. H.(1986). Retirement Financial Planning Among Professional Workers. *Journal of the Gerontology*, 26, 525-530.
- 31) Taell, Kim(1994). A Study of Cooperation Development and Planning of Dwelling and Communal Facilities toward The Elderly People Normalization, KyoTo University, Ph.D Dissertation (unpublished).
- 32) Zhong, L. X. et al.(1993). The Diversity of Income and Net Worth of the Elderly. *The Proceedings of ACCI*, 74-81.